

## Session 12 섬기고, 주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축복할 것에 대한 부르심 (마 6:1-21) (Called to Serve, Give, Pray, Fast, and Bless)

### I. 복습: 도입

A. 산상수훈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은혜와 협력해나가는 성도의 역할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언급이며, 우리의 영적 성장이나 사역의 영향력을 가능해볼 수 있는 “리트머스 테스트”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팔복**(마 5:3-12)을 기경해나가며, 이와 동시에 **100%의 순종**(마 5:48) 추구하고, **6 가지 유혹을 뿌리 뽑으며**(마 5:21-48),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들을 추구**(마 6:1-21)할 것에 대해 부르셨다.

B. 그분은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5 가지 활동에 대해 설명하셨다: 이는 **섬기고, 구제하며**(자비로운 행위: 봉사하며 연보함, 6:1-4, 19-21), **기도하고**(6:5-13), **원수를 축복**(온전한 용서, 6:14; 5:44)하고 **금식**(6:16-18)하는 것이며, 이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의 상급으로 이끈다 (마 6:4, 6, 18, 20).

*4 네 구제함(섬기거나 재정을 보탬, 20 절)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 6 너는 기도할 때에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 14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 17 너는 금식할 때에 ... 18 ...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마 6:4-20)*

C. 나는 이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이 그 자체로는 작고 연약할지라도,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움직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켜나가는 것에 놀라게 되고, 이 일이 단순하다는 것과 쉽게 행할 수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된다. 영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는 우리의 냉랭해진 마음을 “하나님의 임재의 난로” 앞에 두는 일과 같다. 우리가 이 제자도와 훈련을 받아들일 때, 이로 인해 그분이 우리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더 많은 것을 주신다.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D. 팔복(마 5:3-12)은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서 모두 표현된다 (마 6:1-21).

1. **심령이 가난함**: 우리의 마음, 사역, 교회, 도시에 돌파가 일어나야 할 필요를 봄
2. **돌파를 위해 애통해함**: 돌파를 추구함에 극단적이 될 만큼 절박함
3. **온유함**: 우리의 재원을 사용함에 있어 종의 영을 가짐 (시간, 돈, 등)
4. **의를 향해 배고파함**: 하나님의 나라의 돌파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분을 추구함
5. **공홀히 여김**: 다른 이들이 실패하거나, 우리를 공격하거나 실망시킬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함
6. **마음이 청결함**: 우리의 생각과 말, 동기가 정결하기를 구함
7. **화평케 하는 자가 됨**: 화평을 가져오며 깨어진 관계를 치유함
8. **핍박을 견뎌냄**: 의를 향해 핍박을 견디며 주훈(성훈, stigma)을 가짐

- E. 예수님께서 이 5 가지 활동들을 가르치실 때, 각각에 대해 한 가지의 경고와 한 가지의 약속을 함께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헌신에서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끄는 위선에 대해 경고하셨으며,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내셨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 F.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나팔을 부는 일을 피할 것**을 훈계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열정에 대해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끄는 일이다. 그분은 종교의 영으로 공공연히 이를 행하던 바리새인들에게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셨다(마 23:5-7).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헌신되어 있으며, 열정적이며, “기름부음 받았으며,” 똑똑하며, 성실하며, 얼마나 관대한지에 대해 관심을 끌며 나팔을 불고 싶은 본성적인 유혹에 대해 언급하고 계셨다.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바리새인들)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예배 혹은 기도)과 거리(공개적으로 행함)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 6:2)*

## II. 하나님 앞에서의 삶: 상급에 대한 확신

- A. 우리는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이 5 가지 작은 활동들의 가치를 이해해야만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5 가지 활동들의 “작은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작은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을 때에라도 우리의 일들을 주목하시며 살피신다.
- B.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이 활동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상급을 주실 것을 강조하셨다. 상급의 어떤 것은 외적인 것으로써 환경이 하나님의 능력을 변화되는 부분이 있다. 어떤 것은 내적인 것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경험하게 되며 부드럽게 된다. 어떤 것은 영원한 것으로써, 다가올 시대에서의 우리의 운명(destiny)에 영향을 끼친다.
- C. 우리는 이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활동에 대해 (영원한 그리고 현 시대의) 상급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행해 나간다. 우리는 그분의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6 믿음(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 11:6)*

- D. 예수님께서서는 성경 어느 누구보다 영원한 상급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다 (마 5:5, 12, 19; 6:4-6, 18-20; 10:41-42; 16:27; 18:4; 19:21, 28-30; 20:16, 27; 22:14; 23:11; 25:21-23; 막 9:41; 10:21, 42-43; 눅 6:23, 35; 9:48; 12:21, 33; 14:11; 16:11; 18:14, 22; 19:17-19; 22:26-30; 요 12:26; 계 2:7, 10-11, 17, 26-28; 3:4-5, 9, 11-12, 18, 21; 11:18; 16:5; 19:7-8; 22:12).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4)*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6)*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18)*

E.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강조하신 것을 보게 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시각은 드러나며 교정된다.

*27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 16:27)*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계 22:12)*

F. 우리는 어떤 청중 앞에서 살고 있으며, 누구의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많은 성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기로 마음을 “변경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G. 바울은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비교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 또는 사람을 위해 사는 것. 이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자인지,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인지의 부분이다.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지와 자유함 가운데 살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다.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엡 6:6-8)*

H. **눈가림:** 이는 어떤 이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더 겸손하며 관대하게, 성실하게 섬김으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얻기 위해 섬기는 것을 말한다. 중심이 되는 부분은, 우리가 누구를 신경 쓰고 있는지와 누가 우리를 돌아봐주기를 원하고 있는지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칭찬을 구하는가? 아니면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가? 우리를 돌아봐주기를 원하는 이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사람들인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성실히 섬기고 난 후, 무시당하거나 우리가 한 일에 대해 비난을 받아서 실족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신경 쓰고 있었다는 알 수 있다.

### III. 금식의 삶: 자발적인 연약함을 받아들임

A.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 저항하거나 뿌리뽑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마 5 장); 우리는 또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추구해나가야 한다 (마 6 장). 예수님께서서는 5 가지 하나님 나라의 행동들을 보이셨다: 섬기고, 베풀고, 기도하고, 대적을 축복하고, 금식하는 것이다.

B. 금식의 삶이라고도 불리는 **산상 수훈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약함을 받아들일 것에 대한 부르심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바울의 삶에서 연약함을 끌어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는 모순을 말씀하셨다 (고후 12:9). 그분은 도덕적인 연약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바울이 자발적인 연약함을 끌어안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능력)가 네게(바울)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 (고후 12:9)*

- C. 산상 수훈에서는 5 가지 종류의 “금식”이 나온다 (마 6:1-18). 우리는 음식을, 시간을, 에너지를, 돈을, 그리고 말을 금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기도하며, 대적을 축복하며, 음식을 금식함으로** 행해진다. 각각은 금식의 한 형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경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약함을 끌어안는 것이다. 우리는 베품을 통해 우리의 돈과 재정적인 능력을 금식하게 된다. 우리가 섬기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금식하여 다른 이들을 향한 중보를 위해 투자하게 된다. 우리는 음식을 포기함으로 우리의 육신적이고 감정적인 힘을 금식하게 된다. 대적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말과 명성을 금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 D. 성도들의 삶에서 금식의 삶의 가장 큰 대적은 아마도, 금식은 극단적인 기독교에 속한다는 잘못된 개념일 것이며, 금식은 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만 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 금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상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이다. 이는 기독교의 기초과정이다. 기도와 금식, 베품, 섬김, 대적을 축복하는 삶에 헌신됨 없이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IV. 구제 혹은 자비로운 행동: 섬기고, 주는 것에 대한 부르심 (마 6:1-4; 19-21)

- A. 우리는 **섬기고 주는 것**(구제: 섬기거나 재정을 줌)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마 6:1-4, 19-21). 구제는 종이 되어 섬기거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 것을 포함한다.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한글 KJV: 자선을 베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공개적인 모임)과 거리(시장)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1-4)*

- B. 이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재정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더욱 설명해나가신다 (마 6:19-21).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 (마 6:19-20)*

- C. 다른 이들에게 재정적으로 베푸는 것은 우리의 돈에 대한 **금식**의 표현이다. 섬기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 투자함으로 이를 금식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오른 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것을 경고하셨다. 즉 “우리 자신을 축하하지” 말라는 것이다. 초대 교회의 구제가 모두 은밀히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행 2:44-45; 4:34-35; 5:1-10; 11:29-30). 핵심은 가급적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 V. 기도에 대한 부르심 (마 6:5-13)

- A.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마 6:5-8). 기도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때로 말씀을 묵상하는 형태가 되기도 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주기도문을 통해 어떻게 기도하는지는 가르치셨다 (마 6:9-13).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5-6)*

- B. 기도는 자발적인 연약함의 표현으로써, 우리의 시간과 감정들을 금식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지위와 성공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기보다, 우리는 이들 중 일부를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하나님을 구하는 데에 사용한다. 우리의 자유 시간을 미디어에 모두 쏟아버리기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나 사업을 조직하고 세워나가는 기회를 내려놓게 된다.
- C.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의 일부는 그분과 더 큰 친밀함을 가지는 것도 있다. 상급의 일부는 수 십 년 후에 증가된 생산성과 열매로 나타난다. 예수님께서서는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초대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했다 (행 1:14; 2:42; 12:5; 16:13). 그분은 기도나 예배 모임에서 우리 자신에게로 관심을 끌지 말 것을 경고하고 계셨다.

## VI. 축복함의 부르심 (마 6:14-15)

- A. 우리는 충만한 용서를 표현하는 것의 일부로써, 우리의 대적을 축복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마 6:14-15; 5:44). 이는 수동적인 사랑을 뿌리뽑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마 5:21-42).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용서하는 것의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하신다 (마 6:14-15).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 6:15)*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 5:44)*

*44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 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한글 KJV, 마 5:44)*

- B. 원수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은 우리의 말(축복), 행동(선대함), 그리고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 우리의 원수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방해하며, 우리가 실패하기를 바라는 이들을 말한다.

## VII. 금식에 대한 부르심 (마 6:16-18)

- A. 우리는 금식할 것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마 6:16-18). 예수님께서서는 “금식할 때”라고 하셨지, “만일 너희가 금식한다면”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이는 금식이 정상적인 제자의 삶에서 항상 드러나는 요소임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며, 그분의 마음과 말씀, 능력을 더욱 받고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수용력을 늘리기 위해서 금식한다.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 6:16-18)*

- B. 예수님께서서는 아버지께서 금식에 대해 상급을 주실 것을 강조하셨다. 이 선포는 금식의 중요함을 드러내고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금식에 대해 부르시는 것은, 이로 인한 상급이 금식의 어려움보다 훨씬 클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금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마이크 비클과 캔들러의 금식이 주는 축복(순전한 나드)을 읽어보기 바란다.